

“여유 있어 보이지만 ‘방송 부적합’ 스타일이죠”



‘쇼미더머니6’ 준우승 래퍼 낙살 힙합 통해 에너지·즐거움 주고 싶어 주변 권유로 출연 결정 재미있는 경험

“제 인생에는 딱히 드라마도 없고, 무대 밖에서는 맛있는 척도 전혀 못 해요. 딱 ‘방송 부적합’ 스타일이죠. 그래도 ‘쇼미더머니 6’는 인생에서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끝내고 나니 후련~합니다. (웃음)”

최근 종영한 엠넷 ‘쇼미더머니 6’에서 준우승한 래퍼 낙살(본명 이준영·30)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만났다. ‘낙살’이라는 별명답게 단발머리는 그대로였지만 색은 방송 때보다 한층 밝아져 있었다. “가을이라 기분 좀 낫다. 길이는 자르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봐 유지한다”고 웃으며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실하게 흥분감이 느껴졌다.

고등학교 때 ‘익살스러움’에 방점을 두고 지었다는 예명답게 그는 방송 내내 여유가 넘쳐 보였다. 그러나 낙살은 “사실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대 위에서 불안해하고 강박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던 관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 저는 관객에게 힙합을 통한 에너지와 즐거움을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낙살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다. 준우승한 게 아쉬지는 않으나 말에 그는 “우승한 행주 형이 잘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느껴졌다”고 상대를 치켜세웠다. 3위를 한 우원재에 대해서도 “래퍼라면 가져야 할 아이덴티티, 풀입감, 좋은 가사 등 강점을 많이 갖췄다”고 극찬했다.

낙살은 이외에도 페노메코, 펀치넬로, 블랙나인 등 이번 시즌에서 눈에 띄었던 많은 래퍼를 거론했다. ‘쇼미더머니 6’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주변의 권유로 나가게 됐고, 원래 하던 음악만 잘 보여주고 오자고 생각했지만 ‘인간’에 대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실망도 했지만 즐거운 추억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연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무대로는 13세 래퍼 조우찬과 함께 한 ‘부르는 게 값이야’를 꼽았다.

“나이 서른에 13살과 무대를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우찬이는 참 영특하고, 방송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른스럽습니다. 경연이니 어른들도 나가떨어질 만큼 스트레스가 컸을 텐데 프로답게 해내는 것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음악적 조언요? 제가 원래 남에게 가르치듯 말하는 면도 있지만 우찬이에게는 일부러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우찬이가 격려해줬죠.”

에인지 어른인지, 참... (웃음) 그리고 방송 중에도 키가 크더라고요. 좀 있으면 저랑 비슷해지는 것 아닌지 몰라요. (웃음)”

낙살은 프로듀서 팀 다이나믹듀오와의 호흡에 대해서도 한참을 자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어요. 도끼-박재범 팀과 다이나믹듀오 중에 고민했는데 프로듀서 팀 공연을 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야겠다 생각했죠. 뮤지션들이 음악과 자신의 캐릭터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사람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별로고, 착해 보이지만 속물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다이나믹듀오 형들은 정말 똑같아요. 다이나믹듀오를 만나서 저 역시 부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면이 하나도 없이 무대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다이나믹듀오를 만나지 못했다면 방송 스트레스가 두세 배가 됐을 거예요.”

낙살은 2009년 팀 ‘퓨처해븐’의 앨범으로 데뷔했다. 지금이야 대중성도 확보하고 힙합 음악계에서 최고로 꼽히지만 그에게도 힘든 순간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은 광고도 찍고 바쁘지만 돈이 없었을 때는 항상 힘들었다”며 “대한민국 남자로서 낮은 지위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다 3년 전 국내를 대표하는 힙합 레이블 비스메이저컴퍼니(VMO)에 합류하면서 지난해 ‘작은 것들의 신’ 앨범이 그해 ‘한국 힙합 어워즈’에 ‘올해의 힙합 앨범상’을 받는 등 상승장구하고 있다.

낙살은 현재 자리에 오르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랩 스타일과 가사에 대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고 한다. 자신을 대표하는, 귀에 때려 박는 듯한 하이톤 래핑도 무수한 실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처음에는 로우톤으로도 해보고, 하이톤으로도 해봤죠. 어떤 랩을 해야 하는지 몰랐으니깐요. 27살 때까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지금의 톤이 가장 편하면서도 가사를 완벽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소설이든 시든 ‘글’을 쓰고 싶었다는 낙살은 “현재까지는 랩이 저 자신의 창의성과 에너지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다”며 “가사를 쓰는 스타일도 가리지 않는다.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번뜩 떠오르기도 한다. 영감은 주로 일상에서 많이 얻는다”고 설명했다.

랩에 매력을 느끼게 된 계기는 중학교 때 친구 집에서 미국의 힙합어티스트 커먼센스(Common Sense)의 대표곡 ‘아이 유즈드 투 러브 허’(I Used to Love H.E.R.)를 들었을 때라고 한다. 그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것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낙살은 20대 후반까지도 랩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그저 좋아서 계속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돈도 벌게 된 것이라며 자신을 ‘내추럴 본’(Natural born) 래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 진모영 감독 3년만에 신작 나왔다

잠수부 삶 그린 ‘올드마린보이’ DMZ다큐영화제 개막작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요’(2014)로 역대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던 진모영 감독이 3년 만에 새 작품을 들고 나왔다.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로 480만 관객의 가슴을 울린 진 감독이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올드마린보이’. 가족을 위해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 잠수부를 통해 이 시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올드마린보이’는 오는 21일 개막하는 DMZ국제다큐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첫 선을 보인 뒤 오는 11월 2일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 합정동 영화사남아 사무실에서 만난 진 감독은 “4년 전 KTX 잡지에서 본 잠수부 ‘머구리’(잠수를 뜻하는 일본어 모구리에서 비롯된 옛말) 사진 한 장에서 출발한 작품”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진 감독이 접했던 기사는 잠수병으로 두 다리를 못 쓰게 된 잠수부의 이야기였다. 진 감독은 당시 기사의 주인공과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촬영 개시일까지도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해 수순은 끝에 탈북자 출신 머구리 박명호(52) 씨를 주인공으로 섭외하게 된다.

진 감독은 “2005년 탈북 당시 가족과 함께 생과 사의 바다를 건너던 박 씨는 이후에도 머구리로 살아가며 매일 생과 사의 바다를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는 운명을 지녔다”며 “박 씨의 운명이 지닌 상징성이 강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 역시 진 감독의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미 여러 마스크를 통해 알려졌던 박 씨는 자신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 와서 잘 정착한 인물’로만 비치면서 자본주의의 선진국처럼 이용됐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낯선 사회에 정착하면서 탈북자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뒷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마스크가 그런 이야기는 다뤄주지 않았던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서 다해보자고 박 씨를 한 달간 설득한 끝에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 감독은 “박 씨가 두려워하는 것은 물속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며 “작품을 보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들게 일하는 아버지에 대해 안쓰러운 애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 감독의 전작 ‘남아...’는 최근 많은 다큐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큐 관객 저변이 넓어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사는 세계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펼쳐내는 감동은 가상의 세계가 주는 감동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아...’의 주인공 강계열 할머니의 안부도 궁금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1년 정도 혼자 지내시다가 횡성 읍내에 아파트를 얻어서 막내딸 가족과 함께 사세요. 일 년에 네 번은 찾아뵙는데 노인대학에도 가시고 동네 축제에도 귀빈으로 참석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최중우물 안국유랑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재)	00 TV시설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재)	50 병원선(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50 감성톤 고합습니다 2(재)	50 제보자(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행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55 VJ 특강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범상 차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설계 55 닥터 365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코리아인 지오그래피 플러스(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50 텔레몬스터	00 뉴스브리핑
3	05 다큐 공감(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00 똑?똑! 키즈스쿨 30 보글야 사랑해(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앙코르 MBC 스페셜 (아지막 선택, 아름다운 마무리)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남도스페셜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캅 15 티빙메카드 W 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내 남자의 비밀(재) 30 2TV 생생정보	10 빛날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05 천년의 전라도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대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볼 24 55 엄마의 소개팅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아 나무아			
10	35 감성톤 고합습니다 2 40 중계방송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다시 만난 세계
11	4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스페셜 1~2부	10 MBC 뉴스특보 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3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 자기가 - 백년손님
12	30 KBS 뉴스 40 미래기획 2030 -건장한 미래, 법상이 만든다	40 UHD 특선 드라마 화랑(재)	3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5:00 사이언스 맥스(재)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오락 시설)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혹해의 숲은 전주 부르기스)
06:00 한국기행(재)	15:45 레전드(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야생(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저 푸른 초원 위에 물결 4부 어머니의 호수 테러원장)	16:45 덩동령 유치원 1~2(재) 17:15 울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딱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특목! 나하니~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특별 생방송 2017 EBS 어울림 콘서트
07:00 07:00 레이보우 루비 07:30 또딱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령 유치원 1~2 08:30 뽀롱뽀롱 뽀로로 08:45 수확이 야생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20:50 세계테마기행 (유럽 속 비밀의 낙원, 불기어 4부 혹해의 숲은 전주 부르기스) 21:30 한국기행 (맛나다, 떡 4부 오지라서 더 맛있다) 21:50 과학 다큐 버뮤드 (가상, 현실의 미래)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비밀 많은 며느리, 아들 집도 모르는 시어머니) 23:35 야생 고인 상담소 -수상한 철학관 24:30 EBS 스페이스 공감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북한의 오락 시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닭가슴살 연근버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가을 섬 기획 2편 -정자도, 엄마의 섬)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14:30 레이보우 루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1일(음 8월 2일辛亥)

子	48년생 일사적인 반목이나 불협화음이 보인다. 60년생 끈질긴 인내와 빈틈없는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72년생 사세가 변화 무쌍으로 총형 무진하니 탄력적으로 대처하라. 84년생 반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8, 38	午	42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한다. 54년생 노력하지 않는다면 밀릴 수밖에 없다. 66년생 진중하게 처리해야 할 때다. 78년생 별것이 없으니 평상심을 유지하라. 90년생 금전상의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05, 88
丑	49년생 잘 알아보고 써야만 부작용이 없다. 61년생 시급한 일부 터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니라. 73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85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47, 15	未	43년생 서두르다만 오히려 더딜 수 있다. 55년생 하늘의 보살핌이 있겠다. 67년생 추측만으로는 화를 자초하라. 79년생 부시들을 쳐야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려. 91년생 선입견에 의한 추측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 행운의 숫자 : 97, 11
寅	50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구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62년생 한 번의 실수가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74년생 보기 드문 현태 앞에서 놀라라. 86년생 혼음을 아껴 써도 하루해가 너무 짧다. 행운의 숫자 : 16, 62	申	44년생 다각적인 관점과 인식이 절실히 요청된다. 56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순탄한 판국을 조성할 수 있다. 68년생 자신만 만족하지 말고 많이 알아야 효과를 볼 수 있다. 80년생 양면성을 피고 있어서 인식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5, 65
卯	51년생 넘치는 것은 절대로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63년생 지금은 작기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후일을 기약하는 편이 낫다. 75년생 점점 관심을 끄는 일이 생길리라. 87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주시하라. 행운의 숫자 : 80, 23	酉	45년생 공존공영의 기반이 성립되는 도량이다. 57년생 답답하더라도 중간에서 숙단하러 하지 말고 끝까지 기뻐야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69년생 구우일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81년생 보완한 한다면 달성하라. 행운의 숫자 : 69, 01
辰	52년생 역사지해 해본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64년생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다. 76년생 예상대로 준비한다면 작기에 쓸 수 있다. 88년생 복록이 늘어나니 즐거움을 더하라. 행운의 숫자 : 93, 62	戌	46년생 굳은 신념으로 추진해야 풍성한 수확을 예상할 수 있다. 58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70년생 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82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3, 70
巳	53년생 설마가 사람 잡는 법이니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잊지는 않은 지 조심 하자. 65년생 시시각각 변하는 위상이니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77년생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89년생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8, 49	亥	47년생 마음이 풀리어 쉽게 빠져들기에 충분하다. 59년생 승산의 여지는 충분하니 포기하지는 말라. 71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으니 긴장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83년생 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27, 6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